


<p>주제 및 스케치 설명</p>	<p>□ 출동! 호랑이 수비대</p> <p>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, 그들의 생존은 우리 환경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예요. 호랑이의 서식지는 숲이지만,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호랑이들은 점점 더 살 곳을 잃어가고 있죠.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될 거예요. 호랑이의 생존을 지키는 일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담아 호랑이 버스를 만들어보려 합니다.</p> <p>멸종 위기종 보존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,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‘호랑이 수비대’가 전달하러 갑니다.</p> <p>□ 부가적 장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버스 외부 : 칠판페인트 사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오염에 대한 현 위치, 대응할 방법의 목적지 등 정류장 이정표</li> </ul> </li> <li>2. 버스 내부 : 마주 보고 앉는 회의실 형태의 버스 의자 제작</li> <li>3. 입구 및 출구 : 천 사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팀 명과 기후 위기 캠페인, 멸종동물 보호 및 환경보호 메시지</li> </ul> </li> <li>4. 그 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랑이 눈, 코, 입, 귀를 포인트로 주며 목재 파렛트를 한 줄씩 채색하여 호랑이 줄무늬 채색, 버스의 바퀴 부분은 얇드린 발 모양으로 변경될 수 있음, 꼬리 부분은 깃발로 표현</li> </ul> </li> </ol> <p>□ 예술가/ 보조 예술가 소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연우 : 밝은 색감과 어린아이를 닮은 순수한 이미지로 감정적 소통을 꾀하는 예술가</li> <li>- 오성현 : 현대인들의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대변하여 표현하는 보조예술가</li> </ul>
<p>샘플 스케치</p>	

주제  
및  
스캐치  
설명

□ 엉금엉금 거북이 정류장 : 조금 느려도 괜찮아 거북아

거북이 벤치모양의 정류장은 단순히 앉아서 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정류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멸종위기에 처한 거북이와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.

1. 거북이 벤치 디자인\*\*

정류장의 벤치는 거북이의 모습을 본떠 디자인되어, 그 자체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.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

2. 누구나 쉬어가는 정류장\*\*

이 정류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, 아이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공존하며 더불어 쉽터 역할을 합니다. 사람들이 모여 쉬고 대화를 나누며 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3.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\*\*

거북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. 정류장을 통해 거북이의 생존 위기를 알리고, 이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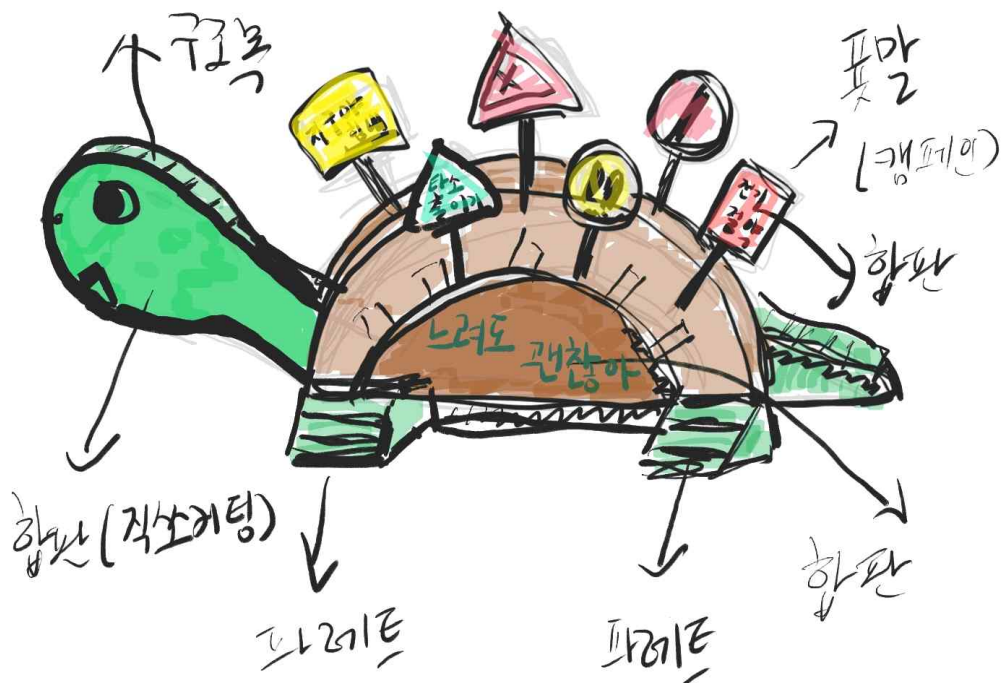
□ 스케치 방법

1. 모양:거북이(바다거북이)
2. 형식(형태):정류장 ,벤치(의자자 놓여있는)
3. 장식(데코레이션):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슬로건이 담겨 있는 이정표 푯말제작
- 4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푯말 제안

□ 예술가/ 보조 예술가 소개

- 백상옥 : 일상 속 물건들에게 감정과 이야기를 붙여넣어 공감의 세계를 창조하는 입체예술가
- 전민준 : 입체예술과 공공미술을 결합하여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보조예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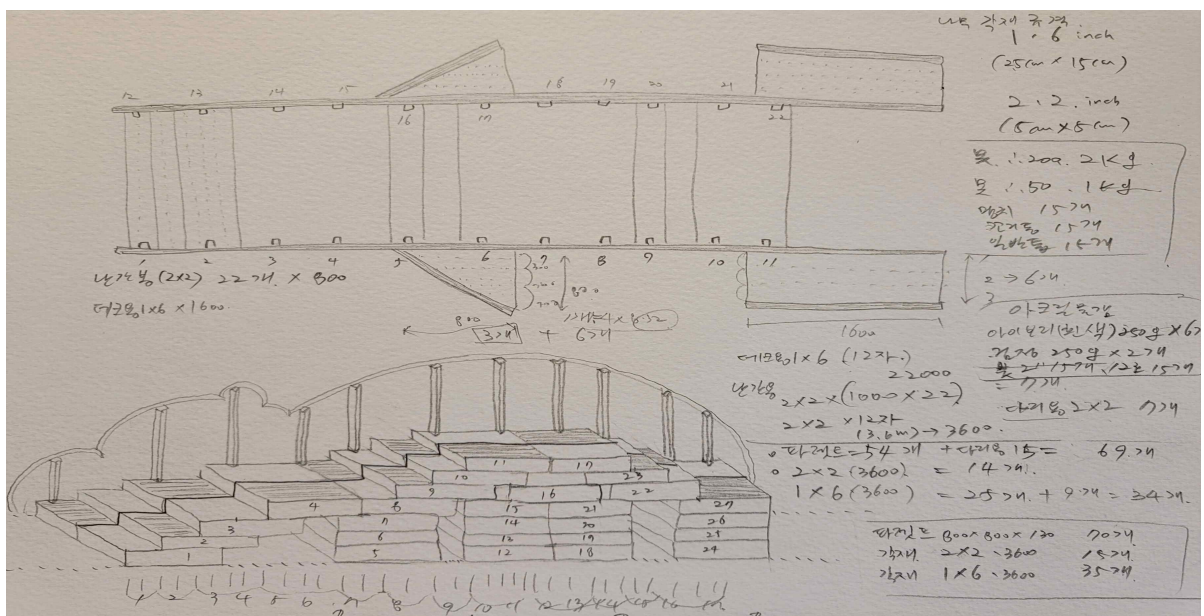
샘플  
스캐치



주제  
및  
스캐치  
설명

- 예술가/ 보조 예술가 소개

- ## 샘플 스캐치



주제  
및  
스캐치  
설명

□ 걷기와 펭귄!

- 우리팀의 주제는 걷기와 펭귄이야.  
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볼 거야!  
어떻게 만들어야 할까??
- 펭귄처럼 뒤통뒤통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.  
천천히 안전하게 동물들의 저탄소 이동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을 상상해서 만들어보자.
- 내가 만든 스케치는 정말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.  
왜냐고???? 내가 너~~~~무 잘만들면 너희들이 만들게 없잖아 ㅎㅎㅎㅎ  
너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여줘봐~~~  
내가 간단히 만들었다고 너희들도 간단히 만드는데 노노~~~

□ 예술가/ 보조 예술가 소개

- 노여운 :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가
- 안진석 : 사고 현장의 재구성과 시그널을 통해 외상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보조예술가

샘플  
스캐치

